

“5·18 국가폭력 숨기고 박정희 영웅 묘사…우려가 현실로”

‘국정 역사교과서’ 5·18-광주학생독립운동 의미 축소

검정교과서 “탱크·헬기 동원 무자비 진압” 대조적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학교 축소·국의 활동 빠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역 교육·역사학과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개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훑어본 뒤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와 내용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확인하게 내보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축소=국정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은 기존 검정교과서에 견줘 대폭 축소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2개의 단락으로 나눠 2페이지 분량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다.

검정교과서(썬미래엔)가 4개 단락으로 나눠 5·18 발발과정, 의의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지역 역사교사들의 입장이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5·18을 노태환 정태환의 노랫말과 ‘5·18 꼬마상주’ 조전호씨 사진, 계엄군의 진압 장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판결문 등을 게재하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됐다는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서울역 시위장면(1980년 5월 15일),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 재물, 광주 시위장면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 폭력’을 숨기는데만 인상을 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교과서가 ‘계엄군은 5월 27일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여 전남 도정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서술했다면 검정교과서는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전남 도정을

국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를 구성해 내용 감수·발행까지 맡아 제작하는 교과서로,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적으로 꾸려 교과서를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아 사용하는 검정 교과서와 다르다.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교육감, 교육장, 저자(발행자) 등이 각각 저작·개발 및 출원할 수 있다.

장악하였다.(5.27)’라고 적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의미도 축소=광주학생독립운동도 허술하게 기재됐다는 지역 역사학계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을 비공개로 해 감감이 집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다루면서 ‘전국의 194개 학교에서 5만40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전국적 항일투쟁으로 발전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학생 주도로 이뤄진 최대 민족운동이었다’고 소개했다. 검정교과서가 ‘광주학생독립운동 때의 격문’을 소개하는가 하면,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가세했고 일본과 만주로 확산되기도 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고 서술한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읽혀진다.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5·16 군사정변(원안)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있다. /연합뉴스

신봉수 빛고을역사교사모임 대표는 더 나아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도 194개 학교가 아닌, 320개 학교에 달한다”면서 “전국 뿐 아니라 국외로 확대됐다는 내용도 빠져 국내로만 한정시켜버리는 문제점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산업화 ‘영웅’으로 묘사”=지역 역사학자들은 국정화 교과서의 대표

적 문제점으로 박정희 정권의 미화를 꼽는다. 광주·전남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도 “박정희를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등 왜곡을 넘어 대통령 가정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라이트 성향 많아…親 정부·관변 비판 소리

집필진 참여 31명 보니

대다수 역사학자 참여 거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철통보안’을 유지했던 집필진 명단도 28일 공개됐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친(親)정부, 관변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은 모두 31명이며 대부분은 중고교 교과서 집필에 동시에 참여했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 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대통령 의혹 헌법소원 봇물…헌재 긴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선 실세 의혹에서 파생한 각종 헌법소원 사건이 탄핵 심판의 ‘전조전’처럼 헌법재판소로 밀려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헌재에 청구된 비선 실세 의혹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최소 5건이다.

이달 2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일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 확인 소송, 22일 대통령직 자진사퇴 불이행 위헌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이어 2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위헌 확인 소송, 24일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 확인 소송과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됐다.

다른 사건 중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용태 변호사 등 대리인 6명을 선임해 제기한 국정농단행위 위헌 확인 소송과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주목된다.

“우병우 2013~2014년 변호사 소득 수십억 추정”

박주민 의원 납세자료 공개

변호사 시절 수입액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 포함된 2013~2014년 소득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종합소득세 12억7693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 종소세는 9억 8647만원이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3억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됐다. 우 전 수석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경우 최소 2013년 33억 6035만원, 2014년 25억9598만원 수준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여순사건 “반란군 진압” 기술…북 비판 수위 높여

고교 한국사 ‘현대사’ 기술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대사 부분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실태와 도발 행위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눈에 띈다.

총 7개 단원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현대사 부분은 제1 마지막인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 등

장한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250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률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고 썼다.

현행 검정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천재교육 308쪽),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을 조직하고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금성출판사 370쪽) 등 ‘정

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이다.

여수·순천 10·29 사건에 대한 서술도 누락 차이점을 보인다. 검정교과서는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에 주둔 중이던 국군을 파견하려 했다. 이때 부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여수·순천 지역의 반란을 진압

하는 동시에, 군대 내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숙군 작업을 강화하였다.(천재 309쪽)고 썼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내 좌익 세력이 제주도로 출동하려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였다’(250쪽)라고 기술했다.

또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고 기술했다.

/연합뉴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 · 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셀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코디셀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남치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홍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1개월 완성, 원장직강, 책임지도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1230-7700 ~ 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